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6. 3.(목)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044-203-3120)

세계 혜택 등 골프 대중화 정책 재점검한다

- '골프 산업 전문가 협의체' 발족, 미래 지향적 골프 산업 발전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6월 3일(목),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종합적인 '골프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골프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골프장들의 과도한 가격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골프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골프 산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에서 현재 골프 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골프장의 과도한 이용가격 인상과 편법 운영으로 인해 세계 혜택 등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골프 대중화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골프장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정책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 논의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배 차관은 "그동안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골프 대중화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골프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